

남원 수지미술관 문예부흥 '산실'

전시·공모사업 활발... 지역 문화수준 높여

지난해 문을 연 남원 수지미술관(관장 심은희)이 활발한 전시·공모사업으로 문화도시 남원의 문화수준을 높여 주고 있다.

수지미술관은 남원시 첫 제1종 미술관으로 박상호 대표가 지리산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하기 위해 설립했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인접한 곳에서 이른 박상호 대표의 꿈

일평생 붓을 잡은 박상호 대표는 전라남도 보성출신으로,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은 한국화가이다.

은퇴 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사재를 털어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과 함께 젊은 작가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는 순수한 예술적 열정으로 자신의 꿈이었던 미술관을 건립하였다.

수지미술관은 연간 4회 이상의 전시를 통해 남원시민은 물론 전라북도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젊은 작가들에게는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대중과 예술인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소중한 미술 작품을 전시·보관하고, 관람객들에게는 쉽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좀더 편안하게 다가 갈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 예술 도시 남원에서의 문화 예술 부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문화도시 남원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지리산·섬진강과 인접한 자연환경적 이점을 활용하여 남원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에게 낭만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에게, 도민에게, 국민에게 항상 열려 있는 전시

수지미술관은 2015년 11월 20일 개관 전 이후 2차례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미술관의 시작을 알리는 개관전 '남원으로의 초대'는 한 화가의 꿈과 열정으로 시작된 수지미술관을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전시였다.

두 번째 전시인 '행복의 선물(A GIFT OF HAPPINESS)'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동심을 주제로 아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년기의 순수성을 표현한 젊은 청년작가 6인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조각, 설치, 회화작품을 선보였다.

2016년 6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세 번째 전시 '환상 교향곡(Fantasy Symphony)'은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병희 작가의 '낮선 도시', 파편적으로 흩어진 광한투의 봄날에 대한 작가의 'When I was', 반복되고 패턴화되는 도시의 생존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군상을 길고양이의 응시로 투영한 홍민호 작가의 'Best Modern World' 등 젊은 예술가 3인의 시선으로



남원 수지미술관 세 번째 전시 '환상교향곡 전'.

본 현실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여러 작품들로 만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장

수지미술관은 남원문화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맞는 진로직업체험 등 다양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전시중인 '환상 교향곡' 전시 연계 프로그램 '판타지뮤지엄'을 KB 국민은행 박물관 노닐기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박물관, 미술관에 관한 교육 및 작가들의 작품제작 과정을 영감으로 관람하고 직접 설치작품을 체험하며 작가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201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펼친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인 '수지에 문화예술을 꽃 피우다'는 수지미술관이 남원의 예술문화의 싹터로서 미술관의 제반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문화향유의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접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세대간 소통을 돕고 있다. 문화강좌 진행과 함께 직거래장터, 아트프라이마켓 등 다양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더욱 풍성한 전시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는 수지미술관의 발전이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스토리 양성교육 실시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지역문화 콘텐츠 창작자를 양성하는 스토리 양성교육을 시행한다.

이는 창작자·창작집단 교육을 콘텐츠 형태와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지역기반의 콘텐츠 및 시나리오를 제작지원 할 수 있는 창작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스토리텔링 기법, 장르별 시나리오 작성법 교육, 스토리 구상 등으로 강연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이수한 예비 창작자들은 3개월간 멘토링 교육을 받으며 지역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설, 시나리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7월 15~16일 고창 해리면에서 열리는 스토리 캠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 강의 및 창작물 구상 등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교육수료자는 연말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수상자는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대학(원)생 및 콘텐츠 창작자라면 무료수강이 가능하며, 지난해 스토리 기초교육 이수자 및 콘텐츠 제작자도 수강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 <http://jcia.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7월 11일 오후 6시까지 imastory@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는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창의인재양성팀 282-2022. /정해은 기자

국민뮤지컬 '넌센스' 오늘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공연

1991년 초연 이후 1000만 관객 동원, 국내 공연 사상 최장 기록을 달성한 국민뮤지컬 '넌센스'가 30일 오후 7시30분 고창 문화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선정으로 마련됐다. 뮤지컬 '넌센스'는 그동안 박정자, 윤석화, 양희경, 하희라, 신애라, 전수경, 이태원 등을 배출해 내며 한국 뮤지컬스타의 등용문이라는 수식어로 더욱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고창 공연에는 떠오르는 뮤지컬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박수화, 송희영, 민시양, 이혜진, 보현이 등 뛰어난 재능과 연기력 그리고 열정을 갖춘 배우들이 캐스팅 됐다. 뮤지컬 넌센스의 인기비결은 탄탄한 스토리에 더해진 '기발함'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함과 성스러운 상진인 '수녀'들이 스마트 TV를 탐내고 빙고게임을 즐기며 경매대회 복권을 사는 등의 모습을 그려내며 반전캐릭터를 통한 치명적 매력을 선보인다. 설 새 없는 수다와 유머,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수녀들이 최첨단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웃음을 선사하며 수녀들이 보여주는 무용과 댄스, 클래식, 소울과 가스펠을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는 지루할 틈 없는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의전당 관계자는 "탄탄한 스토리와 반전 있는 캐릭터, 그리고 실력과 끼 많은 배우들이 펼치는 이번 공연은 군민들에게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잊게 할 즐거운 공연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 학생 1500원이며 이번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http://culture.gcd.kr>)나 문화의전당 사무실(560-8041)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운영기관 선정

고창서 8월 15일~17일 개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2016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돼 총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2010년에 시작한 캠프는 보다 많은 지역 아동들과 예술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지역으로 이관되었으며, 올해는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남, 경남 등 4곳에서 진행된다.

'예술가와 함께 놀다'를 핵심 주제로 하는 우락부락캠프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새로운 커뮤니티(아티스트)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프는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예술가와 작업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을 즐기고 일상의 활력을 찾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초등 4~6학년생을 모집·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참가한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의 워크숍에 참석하여 2박 3일 동안 놀며, 작업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캠프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고창 야외캠핑장에서 열린다. 오는

7월 부터 우락부락 홈페이지 (<http://woorokboorok.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된다. 문의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 230-7441으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인협회, 내달 2일 '전북문인 대동제' 연다

(사)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안도)는 7월 2일 한벽부 전주전통문화관 대극장에서 '제8회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문인 대동제'를 연다.

대동제는 문인과 도민이 함께 지역의 아름다운 정서를 공유하고, 문화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윤희유가 되길 소망하는 행사로 한국문인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학에 대한 해안을 고취시키고자 송희의 (인간에게 문학은 무엇인가)와 김병중 화가의 <문인화로 배우는 인문정신> 인문학 강연을 마련한다.

또한 여원 시낭송회원들의 <전북의 시> 낭송 퍼레이드와 각 시군지부 및 동인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대동제가 창작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30일)

<p>▷쥐띠 46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큰 변동은 없다. 60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운. 72년생: 이성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운. 84년생: 언행에 주의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지리는 피하라.</p>	<p>▷소띠 49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한다. 61년생: 여성은 남자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긴다. 73년생: 모든 일을 조심하고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한쪽의 말만 듣고 편 가르기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 때.</p>	<p>▷호랑이띠 50년생: 상황이 자신의 운을 밀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62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74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과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답답해 할 수 있으니 함께 도모하는 일은 불리하다. 8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p>	<p>▷토끼띠 5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운. 63년생: 남성은 여성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에 중점을 두라. 7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어려움도 잘 넘어갈 것이다. 87년생: 동기간과 함께 화합하는 일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p>
<p>▷용띠 52년생: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64년생: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6년생: 자신보다 약자에게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88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p>	<p>▷뱀띠 5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 65년생: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못하는 운. 77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려라. 89년생: 외면적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운이다.</p>	<p>▷말띠 54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에 휘말리게 된다. 66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있으니 먼저 내보내면 큰 손재수는 없을 것이다. 78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아주 좋은 운이다. 9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p>	<p>▷양띠 55년생: 상황에 대한 관리를 느낄 수 있는 운이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중간중간 막힘이 생기는 운으로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행동하라. 79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 9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는 운.</p>
<p>▷원숭이띠 56년생: 금전적으로 막히는 상황이다. 68년생: 문서에 결실이 비추니 빨리 움직이면 좋다. 80년생: 급하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92년생: 익숙했던 일이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라.</p>	<p>▷닭띠 57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내실을 다져라. 69년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81년생: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쉬어가면서 움직여라. 93년생: 동기간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운이다.</p>	<p>▷개띠 46년생: 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필요운 운이다. 70년생: 부지런히 움직이면 결과를 얻는다. 82년생: 운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p>	<p>▷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욕심으로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59년생: 뒷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때.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후반에는 다시 화합할 수 있겠다. 83년생: 초심을 잃지 마라.</p>